

성경으로 돌아가자.

“디모데 후서 3:15b-16^a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 이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임의 이름이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UBF)이다.

성경, 하나님 말씀안에 구원, 진리, 생명, 인생의 참된길. 영생, 세계 선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 말씀과 관련, 소천하신 사무엘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말씀을 깊이 파서 생명력있는 메시지는 잘 알려진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위에 우리 모임이 성장하였다.

우루과이 개척이 8 년이 넘었다. 메신저가 말씀을 잘 파는 것이 성장의 관건이라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 처음에는 무릎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를 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중요 관점만 생각하고 다른 분의 메시지를 참고하기도 더 쉬운 방법으로 베껴 짜집기 하기도 하였다. 어느 때는 남의 저작권의 도용이다. 양심의 소리가 있었으나 무시하였다. 나 자신도 전하고 나면 말씀을 잊어 버렸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았다.양들이 오고 갔다.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 졌으므로 본문에 주의하며, 성령님께서 말씀을 알려 주시도록 기도하며 주일 메세지를 준비 하고 있다.

은근히 동역자도 주일 메시지에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곤 힘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명의 양이 목자급으로 성장하였다. 말씀 공부, 소감, 한달에 한 번 메신저, 메시지 본문 암송등으로 말씀 사랑과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이 곳에서 3 년 과정의 신학 공부를 하였다. 성경 전권의 공부는 물론 여러 배운 것들이 많다. 이 곳의 영적 분위기, 교회들의 사정,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 등 많은 잊점이 있었다. 그러나 한가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임의 성경 공부가 깊이가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인생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히 4:12)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에게 찾아 오지 않았다면 슬
취하며 세상을 비난하며 멸망의 길을 갈수 밖에 없던 자다. 성경 공부 한참 후
요한복음 14:6 절 말씀으로 찾아 오셨다. 아침에 진리를 만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공자의 말이 대학 시절, 인생을 방황 할 때에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런데 10 년도 지나 예수님안에서 절대 진리와 길을 만나게 되었다.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 더우기 알지 못하는 땅 우루과이까지 와 선교사로 살게 될 줄은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이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고 그 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소천하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우리 모임의 분열과 위기 상황에 직면 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권고 하셨다. 그리고 얼마 후 본향으로 가셨다.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다. (신.32:46)
이스라엘 흥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유언으로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노래로 남겼다. (신.32) 여호수아 유언 역시 하나님을 경외와 말씀
순종이다. (수 24) 다윗의 유언도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다.
(왕상 2:3)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주신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은 세계 선교
(행 1:8, 마 28:18-20,) 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과학 기술 발전과 정보화 기술 혁신으로 세상은 눈 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변화의 거센 물결에 따라, 복음 역사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의 모임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살아 가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시대를 고통하는 시대,
말세로,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루과이는 영적으로 상당히 황무한 나라다. 개신교 비율을 5%
이하로 보고 있다.정부는 마리화나를 생산하여 좋은 품질로, 저렴한 판매를
하고자 정했다. 중남미에서 쿠바와 함께 낙태법이 통과된 두번째 나라가 되었다.
정부는 종교를 강요 할수 없다고 공공 기관, 물론 대학 포함 전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아름다운 해변등 자연 경관도 갖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에서 쿠바와 함께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때에 우리를 황무한 우루과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의 12 제자를 일으켜 세우고 기도하도록 보내 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닻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내리게 하며 소망가운데 어려움에 봉착 할 때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 자신의 우선 순위. 지속적인 목표이다.

우리의 UBF 공동체도 변화의 물결에 서있다.한국 UBF 도 성장이라는 교단을 설립하여 스텝 목사님 일부를 목사 안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외적으로 KIMNET (한국 교회 선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우리 세대는 UBF 에서 성경 공부후 교회로 가면 도망갔다고 표현했다. 지역 교회와 우리와는 다르다는 인식이였다.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다. 우리 모임도 예수님이 머리되신 세계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교회로 인식과 다른 교회와 합력을 시도하고 있다.

크고 작은 내 외적 변화의 물결에 우리의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다. 한 시대에 세계 선교에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선교 단체들도 1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져 간 사례들도 많다.

성경으로 돌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지속적인 영적 투쟁정신이 우리 모임에 살아 있을 때 여러 어려움과 변화의 물결에서, 지속적인 성장 할수 있는 근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각자에게 크게 감동을 주어 믿음위에 더욱 견고하여 성장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미 개척된 많은 세계의 캠퍼스들을 개척하며, 미약한 개척 지구에도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길 기도한다.